

광주시, 2천100억대 SRF 운영비 분쟁 중재 잠정 연기

姜시장, 포스코에너지 대표 등 면담

8차 심리 연기...실무협의 조정 합의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하 SRF 제조시설) 운영비용 분쟁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서울 포스코에너지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정정빛고을(주) 김호열 대표,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에너지 정희민 대표 등 SRF시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SRF제조시설 운영비 관련 중재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던 SRF제조시설 및 정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양측이 운영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 78억원을 논의 과정에서 2배 증액된 약 2천1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포스코에너지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에 “중재 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정빛고을이 중재 진행 중 과도하게 신청 금액을 늘린 것이 단순한 중재 합의와 사업 협약서상 문구적 해석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 사안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가 보장되는 법적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정정빛고을은 중재기일이 예정된 오는 25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제8차 심리를 연기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포스코 회장과 면담을 갖고 포스코에너지의 중재 신청 철회와 합의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대체시설로 SRF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정정빛고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대표 건설사는 포스코에너지(옛 포스코건설)였으며 설계·시공·운영 제반 사항을 포함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건립에 착수, 2017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국난방공사의 SRF발전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하면서 광주SRF제조시설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년 간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후 재가동 단계에서 운영사의 운영비 증액 요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재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사가 중재신청금액을 당초 78억원에서 약 2배 증가한 2천100억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은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姜시장, ‘AI·미래차’ 등 지역현안 국비 확보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만나 정부 지원 요청

마북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도 건의

광주시가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 시장은 김현종 국가안

보실 제1차장, 한정에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 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

강 시장이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AX실증밸리 조성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마북동 탄약고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들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뒷받침할 산업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미래차 산업 등 이변에 건의한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확장 재정이 정부 정책 기조이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전남 구축 환영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성명 발표

전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5일 “정부가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발표한 환영 성명서를 통해 “전남에 국내 최초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과 인재를 집적화한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및 K-재생에너지를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발표는 지난날 정부가 발표

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함께 전남이 2050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 사건이자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실천할 핵심 동력이 마련되고 이를 전남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며 “전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전남이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을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도, ‘극한 호우’ 피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주택 침수시 재난지원금 등 최대 550만원

소상공인 3억원 특별보증·현장 금융상담

전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주택에 재난지원금으로 35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되는 200만

원의 의연금까지 더해지면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주영업장 피해에도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읍·면·동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재해 특

례보증을 신청,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오는 8일까지 4일간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2025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광역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모집인원

수시 모집 (예산 범위 내)

모집기간

2025. 7. 21. ~ 11. 30.

돌봄수당

월20만원 (1일 4시간 이상 돌봄 원칙)

신청자격

1.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두자녀 이상인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실제 광주 거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후가 기간은 가능
5. 서비스 이용기간: 최대 3년 ※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산정함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서약서(광주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gcwo.or.kr)
2.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4.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금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전화 | 062-363-9401~2

●팩스 | 062-363-9403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문의처

(사)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화 | 062-363-9401~2

●홈페이지 | http://www.gcwo.or.kr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BKHCj?from=qr

CMYK